

“비극보다 더 가슴 아픈것은 진실 왜곡”

서른 네번째 생일 맞는 ‘5·18동아’가 본 5·18은

故 김재평씨 딸 김소형씨 “아빠 죽음 헛되지 않았으면”

고흥 하미선씨 “급박한 상황...땃줄도 아버지가 잘라”

1980년 5월 18일,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민주화를 부르짖다 쓰러져간 그날, 계엄군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총탄세례를 받던 순간, 아기 울음소리는 터져 나왔다.

광주지역 ‘5·18 동아’는 모두 67명(남성 32명·여성 35명). 이들은 생일이기도 한 5·18을 서른네 번씩 거치며 이제는 어엿한 한집안의 아빠·엄마가 됐다. ‘5·18 동아’들이 태어난 곳은 대부분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 안방이다.

이들의 부모는 계엄군의 총탄과 무차별한 폭력에 희생된 사상자들로 가독한 병원에서 감히 출산할 엄두를 못 냈다. 태어난 순간부터 불운한 세상과 맞닥뜨린 이들이 성장하면서 5월의 의미가 무엇인지, 민주·평화에 진정 무엇인지 아는 나이가 됐다.

고(故) 김재평씨의 딸 김소형(34)씨는 지난 1980년 5월 18일 태어났다. 고인이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지거나 전 태어난 김씨는 5월이 돌아오면

아버지 생각이 절로 난다고 했다. 김씨는 자신의 생일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는다.

생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다. 김씨는 현재 웨딩 플래너로 일하면서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월 청년부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때문에 5·18 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안다. 특히 5·18이 일부 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폄하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김씨는 “어릴 적부터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왔는데, 언제부터인가 제창을 불려하고 있다.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같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민군이 고흥군 대서면 지서의 무기를 탈취한 시각인 새벽 5시, 시민군 후송차량이 집앞을 지나는 급박한 상황에서

태어난 하미선(여·34)씨, 하씨의 아버지는 산모와 새 생명이 다칠까봐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받아냈다. 땃줄도 아버지가 직접 잘라냈다고 한다.

하씨는 5월이 오면 부모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한다고 했다.

최여정(여·34)씨도 해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는다. 광주에서 5월 18일 날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난 순간부터 광주의 비극을 보면서 태어난 최씨, 하지만, 그녀는 그날의 비극보다 더 가슴 아픈건 5·18 진실이 왜곡되고 부정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5·18은 아들에게 자신의 생일날 광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리기 위해 해왔으며 5·18 역사적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듯 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국립 5·18민주묘지 찾은 청소년들 11일 5·18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일을 일주일 앞두고 참배객들이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방대, 올 지역인재 전형으로 7400명 선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방대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두 7400여명이 선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인재 전형은 비(非) 수도권 지역의 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내 고등학교 출신으로 할당해 선발하는 방법이다.

1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지방대 64개교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두 7천407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관련 법령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급적 각 대학 모집 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은 의대의 경우 23개교에서 383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는다. 조선대(44명), 전북대(35명), 부산대(30명), 원광대(29명), 인제대(27명), 전남대(26명), 건양대(25명) 등이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많다.

지역인재 전형은 지역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해 해당 대학이 소재한 권역 내 고교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의 범위를 더 좁힌 대학도 있다.

예컨대 조선대와 전남대는 전제 호남권

이 아닌 광주·전남을, 충북대는 충남과 대전을 제외한 충북만을 대상 학교로 설정해 수험생들은 해당 대학의 지원자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치의대는 5개교에서 63명을, 한의대는 8개교에서 100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한다. 치의대는 조선대(28명), 원광대(16명)가, 한의대는 원광대(31명), 동국대 경주캠퍼스(29명)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많은 학생을 뽑는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1 일몰 16:52
해질 19:27 달출 03:43

진도해상 오전 '풍랑주의보'

오전에 비보다 낮에 개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비	16/24	보성	비	16/24
목포	비	15/22	순천	비	17/24
여수	비	17/23	영광	비	16/22
나주	비	16/24	진도	비	15/21
완도	비	15/23	전주	비	15/23
구례	비	17/25	군산	비	15/21
강진	비	15/23	남원	비	15/23
해남	비	15/22	흑산도	비	13/19
장성	비	16/2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서~서 1.0~2.0	남서~서 1.0~1.5
남해	앞바다 남서~서 2.0~3.0	남서~서 1.0~2.0
남부	앞바다 남서~서 2.0~3.0	서~북서 1.0~2.0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4.0	서~북서 2.0~3.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0:08	05:40
	12:16	17:51
여수	07:20	01:17
	19:56	13:21

◇주간 날씨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14/28	14/26	14/25	14/26	13/26	13/25	12/26

◇생활지수

	식중독	30
	운동	10
	빨래	20

목포, 대형유통업체 우회입점 하나

목포시 재래시장 위축 등 이유 건축주 변경 불허에

광주지법, 홈플러스 승소 판결...지역 상인 반발 예상

전남도와 목포시가 ‘재래시장 위축 및 영세 상인 피해’ 등을 내세워 대형 유통업체의 이른바 ‘우회 입점’ 계획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희)는 유통업체 홈플러스(주)가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앞서 목포시 상동 옛 농산물 도매시장에 이미 건축허가가 난 대형 판매 시설 부지의 건축주를 비케이큐브(주)에서 홈플러스로 변경을 요구했다가 목포시가 불허하자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 ‘공공복리에 위배된다’며 기각된 바 있다. 홈플러스는 이에 불복,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같은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것으로, 판결로만 보면 대형유통업체의 우회 입점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받아들여져 지역 영세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비케이큐브의 명변경동의서를 첨부해 이뤄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서 “목포시가 지역자

금 외부유출 등 피해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실제적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목포시가 실제적 이유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목포시가 제시하거나 주장한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 건축물을 완공한 뒤 대형 유통점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목포시가 영세상인 피해, 재래시장 위축, 지역자금 외부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지만 피해 발생 여부 및 정도에 관해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전제한 뒤 “오래된 대형유통점 입점으로 고용, 소비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대형유통점 입점으로 시민 입장에서는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점 등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게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가격굴알라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신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텅텅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서 구 352-7788
남 구 676-7719
북 구 512-7998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 천 744-8605
여 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